

전남 25cm ‘눈폭탄’…도로·항공·해상 마비

무안 25cm·목포 20.4cm·해남 18.8cm…영광·신안 대설주의보
화물선 교각 충돌·여객선 운항 중단·항공편 결항 등 잇따라
영하권 추위 이어지며 길 얼어붙어 보행자 등 안전 주의해야

주말 사이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5cm 폭설이 내리면서 교통이 통제되고 미끄러짐 등 피해가 잇따랐다. 영하권의 날씨가 12일에도 이어지면서 눈이 쌓여 있는 도로가 밤 사이 다시 얼어 출근길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10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2~25cm 눈이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의 24시간 최심적설량(24시간 이내 새롭게 쌓인 눈이 가장 두껍게 쌓였을 때의 깊이)은 무안 전남도청 25cm, 목포 20.4cm, 해남 산이면 18.8cm, 영광 낙월도 14.3cm, 신안 압해 14.3cm, 광주 2.7cm 등이었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6시부터 무안과 목포, 해남 등지에 대설 경보를 잇따라 발효하기도 했다. 대설 경보는 오후 2시까지 모두 해제됐다.

폭설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총 39건의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도로 위 나무 쓰러짐 등 안전조치 20건, 교통사고 및 보행 중 넘어짐 등 구급 19건이다.

이날 낮 12시 30분께 진도를 해장리에서는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봇대를 충돌한 후 전복돼 버스기사자와 승객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거센 눈발 때문에 중국으로 향하던 화물선이 신

안군 천사대교 교각을 충돌하는 아찔한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1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팔라우선적 화물선(2500 t·베트남 국적 총 13명 승선)이 압해도 인근 천사대교 교각에 부딪혔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선 오른쪽 중앙부에 폭 3여m, 높이 1.5여m의 파공이 생겼고, 천사대교 교각 하단 부분이 파손됐다.

항해사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내린 탓에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곳곳의 산간 도로 통행도 차단됐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구례·무안·목포·진도 지역의 5개 지방도로는 전남 밤부터 통행이 막힌 상태다. 광주에서는 무등산 원효사 등으로 향하는 5개 시내 버스 노선이 일시적으로 단축·우회 운영됐다가 해제됐다. 무등산 탐방로 35개소와 지리산 전남 지역, 월출산 등 국립공원 역시 전날 입산이 통제됐다가 이날 모두 해제되기도 했다.

해상, 항공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33개 항로와 여객선 38척의 운항이 통제된 상태다. 항구별로는 완도항 5개 항로 4척, 목포항 23개 항로 29척, 여수항 3개 항로 3척, 고흥항 2개 항로 2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광주공항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 1편이 기상 상황을 이유로 결항됐으며 여수공항에서는 같은 날 낮 12시 이후 제주와 김포로 향하는 항공편 5편이 모두 취소됐다. 또 여수공항에서는 11일 오전에도 제주행 항공편 1편이 지연됐고, 김포로 향하는 항공편 1편은 결항됐다. 이날 오후부터는 항공편 운항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12일부터는 눈구름대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으나, 영하권 추위는 지속될 전망이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7~2도, 낮 최고기온은 6~10도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낮아 춥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1~4도, 낮 최고기온은 4~8도가 예상된다.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3도, 낮 최고기온은 6~9도가 나타나겠다. 15일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겠다.

여수 지역에 건조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오후 7시 30분 기준 대설주의보는 장성·영광·신안·흑산도·홍도 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다. 고흥·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강진·해남·완도·영암·무안·함평·영광·목포·신안·진도·흑산도·홍도·거문도·초도 등 전남 18곳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낮 동안 녹은 눈이 밤 사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눈발에 그리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눈이 내린 11일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산책로와 연못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서도 ‘몸짱 소방관’ 달력 주인공 나올까

전남소방본부, 6월까지 소방관 등 30명 선발
수상자 전국대회 출전…2027년 달력 제작도

전남소방본부가 2026년 전남 ‘몸짱 소방관’을 선발하는 데 이어 전남 자체 몸짱소방관 달력도 제작하기로 했다.

당초 전국 몸짱 소방관 경연대회 우승자로 채워지던 달력과 별개로 전남소방이 자체 달력을 만들기로 하면서 전남 소방관들만의 ‘멋진 근육’이 담긴 달력을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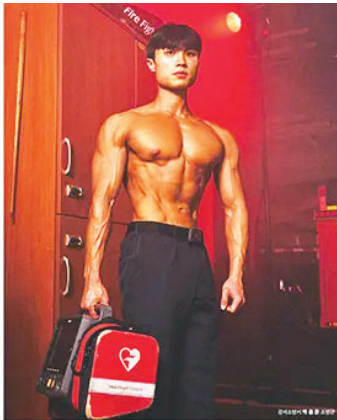
전남소방본부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6개월 동안 ‘몸짱 소방관 희망 나눔 달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소방관 25명, 의용소방대 5명 등 30명의 전남 몸짱 소방관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몸짱 소방관 희망 나눔 달력’ 프로젝트는 서울소방재난본부가 2014년 시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현직 소방관 중 13인을 표지 모델로 선정해 수익금을 중증 화상 환자 치료비 등으로 환원하는 사업이다. 달력에 출연할 몸짱 소방관들은 매년 한 차례 실시하는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몸짱 소방관’ 종목에서 수상한 이들로 채워진다.

전남소방은 우선 올해 전남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몸짱소방관 분야 수상자를 정한 뒤, 이들을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출전시킬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 전남소방은 전남 지역 내 선발된 몸짱소방관들의 사진을 촬영해 증정용 ‘2027년 전남 몸짱 소방관 달력’을 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대회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전남소방은 오는 6월까지 몸짱 소방관 출전자들을 위해 단백질 보충제, 탄(몸에 바르는 발색제), 트레이닝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제작한 2026년 몸짱 소방관 달력.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전남소방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트레이닝을 거쳐 개인별 몸 관리, 복무 관련 전반적 사항 등을 고려해 몸짱소방관을 선별할 예정이다”며 “오는 7~9월 사진촬영을 하고 올해 안에 달력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알립니다

제70회 신문의 날 표어 및 신문홍보 캐릭터를 공모합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제70회 신문의 날을 맞아 표어 및 신문홍보 캐릭터를 공모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표어 공모전
 - 출품규격 및 출품작 수 : 20자 이내, 개인별 2점 이내
2. 신문홍보 캐릭터 공모전
 - 출품 규격
 - 캐릭터 형태 : 기본형 앞, 뒤, 좌, 우 4종
 - 제출 파일 확장자 : JPG, PNG, PDF 파일 (손그림 제외)
 - 출품작 수 : 개인별 2작품 이내
 - ※ 시상 내역 (표어·캐릭터 각각 선정 및 시상)
 - 대 상 1명 (상금 100만원과 상패)
 - 우수상 2명 (상금 50만원과 상패)
 - 공모기간 : 2026년 1월 12일(월) ~ 2월 27일(금) 17:00까지
 - 발표 : 3월 중순 이후 수상자 개별 통보
 - 시상 :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 대회
 - 문의처 : 한국신문협회, 02-733-2251
 - ※ 표어·캐릭터 응모 방법은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 참고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光州日報社

SRT, 설 명절 승차권 예매 26일 시작

설 연휴기간 SRT(수서고속철도) 승차권 예매가 오는 26일부터 4일간 진행된다.

SR은 오는 26~28일 SR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설 연휴 기간(2월 13~18일) 운행되는 열차 승차권 예매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우선예매는 26~27일 이틀간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진행된다. 교통약자는 오는 16일 낮 12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사전 등록해야 하며, 기존 등록 고객과 경로 고객은 별도 등록 없이 예매할 수 있다.

교통약자를 포함한 전국민 대상 예매는 28~29

일 오전 7시~오후 1시에 운영된다.

28일은 경부·경전·동해선, 29일은 호남·전라선이 대상이다.

일반 예매의 경우 29일 오후 3시부터 2월 1일 새벽 0시까지, 교통약자 우선예매 승차권은 2월 4일 새벽 0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잔여 좌석은 29일 오후 3시 이후 공식 홈페이지, SRT앱, 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매 가능하다.

한편,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등 기차표 예매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서민경 기자 minky@

저희 병원의 엄마사랑 아이사랑 정신은 계속됩니다.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에덴병원”

지난 한해 보내주신 크나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표원장 허 정 외 임직원들동



진 료 내 용

산부인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건강검진센터



에덴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연암로 170번길 10(두암동)
대표전화 | (062)260-3000

